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설교에 드러난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개혁주의적 비판”

이신열 (백석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신학을 논함에 있어서 대다수는 ‘성령세례’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라는 성령론적 주제에 국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 운동의 강조점이 성령론에 놓여 있음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령세례의 교리가 오순절 운동에 의하여 주창되어진 독창적인 교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교리를 생산하게 된 오순절 운동의 설교에 관한 연구, 더 구체적으로 오순절 운동의 교리가 설교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사실이다. 교리사의 전체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오순절 운동이 교리적 측면에서 기여가 거의 전무하다고 평가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순절 운동이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운동 (Azusa Street Revival)에서 시작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 운동을 평가함에 있어서 설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에 드러난 설교의 특징을 교리적 차원에서 분석, 평가, 비판하는 것은 이 운동의 교리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오순절 운동의 설교를 개혁주의적 차원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이를 ‘말씀과 성령’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드러난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개혁주의 설교에 대하여도 더욱 깊은 이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에 있어서 설교의 위치를 신학적으로 고찰하고 설교의 특징이 그 교리적 특징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정립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 운동의 주도적 인물들의 설교를 고전적 오순절 운동 (classical Pentecostal Movement), 신오순절 운동 (Neo-Pentecostal Movement), 그리고 은사주의 운동 (Charismatic Movement)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개혁주의적 입장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신학적 특징

이 운동의 설교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개괄적으로 이 운동의 신학에 드러난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회중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설교라고 한다면 설교는 먼저 설교자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교리적 차원을 제외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논할 수는 없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교리적 차원이 바로 신학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순절 운동은 어떠한 신학적 차원을 지니고 있는가? 데이턴 (Donald W. Dayton)은 미국의 국제사중복음교회(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이 운동이 4가지 신학적 강조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¹⁾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령세례, 신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기에 해당된다. 데이턴이 주장하는 오순절 운동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신학적 주제에 드러난 공통점은 4가지가 모두 그리스도를 주체 (subject)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

1) Donald W. Dayton, *Theological Roots of Pentecostalism* (Peabody, MA: Hendrickson, 1994), 21-23.



라서 오순절 운동, 특히 고전적 오순절 운동이라고 불리는 초기 오순절 운동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은사주의 운동의 신학적 성격을 성령론적 관점에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비판한 패커 (J. I. Packer)는 이 운동의 장점을 논하면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성 (Christ-centeredness)을 들고 있다.²⁾

따라서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신학적 성격이 철저히 성령론적이라는 일반적 견해는 사실상 이 운동이 지닌 기독교적 차원이 오순절 운동의 교리적 가르침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간과되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순절 운동이 어떤 이유에서 기독교보다는 성령론에 집중하는 신학을 지닌 운동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교리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오순절 운동에서 특징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기독교적 요소들이 구원론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천주교 신학과 개혁신학의 신학은 둘 다 신유 (divine healing)를 신론 (the doctrine of God)에 있어서 특별섭리 즉 기적 (miracle)의 한 형태로 이해하였다.³⁾ 오순절 운동의 경우 19세기 미국에 유행하였던 신유운동 (Divine Healing Movement)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이것을 은사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⁴⁾ 즉 신유는 섭리라는 교리의 한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 육체의 구원에 필수적인 구원론적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신유는 기독교적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론적 차원을 지닌 것으로 강조되어지기 시작했다.

둘째, 개별 신자에게 성령의 사역으로 주어지는 은사로서의 능력을 그리스도가 베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보다 더 강조하게 되었음에서 비롯되었다. 성령세례라는 교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모든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은사로 해석되었다. 오순절 운동은 이 교리를 방언과 동일시하고 이를 모든 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necessary) 요소로 보았다. 그 결과 성령세례의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개념보다는 이를 통하여 주어지는 능력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즉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와 여기에서 비롯되는 은혜보다는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사로서의 능력이 주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총체적으로 오순절 운동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이분화 (bifurcation)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분화는 오순절 신학을 성령세례에 근거한 성령론에 집중된 신학으로 특징짓기에 이르게 된다.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위에 성령의 능력에 근거한 성령세례를 부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학적 구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신학의 특징은 중생과 성화를 이분화하여 중생을 전제로 완전성화 (entire sanctification)를 구원의 필수적 요소로 간주하는 요한 웨슬리 신학의 '제 2의 축복' (the second blessing) 교리의 변형된 형태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즉 모든 신자들이 중생을 받은 후에 부가적으로 (additionally) 반드시 경험해야 할 성령세례를 강조하는 것이 오순절 운동의 필수적이며 독창적인 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오순절 운동의 신학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이분화하고 은혜와 능력을 차별화하는 독특한 신학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성령세례를 강조하는 성령론에 집중하는 성령의 신학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학적 특징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설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

2) J. I. Packer,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Grand Rapids: Baker, 1996),

3) Thomas Aquinas, Charles Hodge, Elizabeth Schussler Fiorenza,

4) 19세기 중반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였던 성화운동 (the Holiness Movement)의 영향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모든 신자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표적인 주창자로는 A. J. Gordon, A. B. Simpson, Andrew Murray 등이 있다.



3.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설교에 드러난 말씀과 성령

오순절 운동의 기원과 관련하여 아주사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윌리엄 시모어 (William Seymour)의 스승인 찰스 파함 (Charles Parham, 1873-1929)의 역할이 간과되어지는 것이 현실이다.⁵⁾ 그러나 파함은 방언을 성령세례의 초기 증거 (initial evidence)와 신체적 증거 (physical evidence)로 설명하면서 이를 시모어에게 전수하였으므로 오순절 운동의 기원을 논함에 있어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인물임에 틀림없다.⁶⁾ 이런 맥락에서 고전적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그의 설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찰스 파함

파함은 ‘성령세례’ (Baptism of the Holy Ghost)라는 설교에서 사도행전 2, 8, 10장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literally)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실질적이고 눈에 띄는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방언이 ‘성령세례의 분리되어질 수 없는 부분 (an inseparable part of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단언하였다.⁷⁾ 이는 성령이 신자들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방언을 가리킨다. 사도행전에 주어진 말씀에 기록된 방언이라는 현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야 함을 가리킨다.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문자 그대로 현실에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나야 함을 가리킨다.⁸⁾ 그렇다면 성령세례를 받았음에 대한 증거로서 주어지는 방언은 사실상 성령세례라는 과거의 구체적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복원 (restoration)시키는 차원에 해당된다. 파함이 과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복고주의 (restorationism)를 주장한다면 여기에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파함은 성령세례를 받고 그 증거로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단지 기다림 (tarrying)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말한다.⁹⁾ 이는 성령이 방언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파함은 성령이 성령세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한 사건에 나타난 방언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는다. 방언이 성령세례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리고 성령세례의 초기 증거 (initial evidence)라는 사실이 강조되었을 따름이다.¹⁰⁾

그렇다면 말씀과 관련된 성령의 역할은 어떤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는가? 파함은 이 설교에서 성령세례가 곧 성령의 인치심 (sealing)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¹¹⁾ 즉 말씀의 현실화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과거의 사건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확증시킴에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 주어진 과거의 실제 (reality of the past)가 현실 (reality of the present)로 드러남에 대한 확증을

5) Sydney Ahl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New Haven: Yale Univ. Press, 1972), 820; Mark Noll,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Grand Rapids: Eerdmans, 1992), 386-8.

6) 그의 전기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James R. Goff, Jr., *Fields White Unto Harvest: Charles Fox Parham and the Missionary Origins of Pentecostalism* (Fayetteville, AR: Univ. of Arkansas Press, 1988), 초기증거와 성령세례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고할 것. James R. Goff, Jr., 'Initial Tongues in the Theology of Charles Fox Parham' in Gary B. McGee (ed.), *Initial Evidence: Historical and Biblical Perspectives on the Pentecostal Doctrine of Spirit Baptism* (Peabody, MA: Hendrickson, 1991), 57-71.

7) Charles F. Parham, "A Voice Crying in the Wilderness" (1902) in *The Sermons of Charles F. Parham* (New York: Garland Pub., 1985), 35.

8) Ibid, 28: "This scene being true the same evidence would follow today as at that time, if we also are privileged to be recipients of the Baptism of the Holy Ghost; ... "

9) Ibid.

10) Frederick Dale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The Pentecostal Experience and the New Testament Witness* (Grand Rapids: Eerdmans, 1971), 76f.

11) Parham, "A Voice Crying in the Wilderness", 31.



가리킨다. 이는 과함이 이해한 임박한 종말의 도래에 대한 전천년설적 견해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성령세례를 통한 성령의 인치심은 종말을 통하여 주어지는 대환난 (great tribulation)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이러한 인치심은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세계에 대한 보증 그 자체이기도 하였다.¹²⁾ 과함은 일반적인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여 성령의 조명 (illumination)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성령의 기름부으심 (anointing)으로 명명하였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해, 보좌로부터의 신적 빛과 계시를 열어주고 조명하며...”.¹³⁾ 그러나 성령세례, 즉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주어지는 특별한 기름부으심을 일반적 기름부으심과 분명하게 구분하여 이를 종말론적 모티브와 관련지었던 것이다. 즉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깨달음을 제공해준다면 성령세례는 이렇게 깨닫게 된 말씀에 대한 특별한 확신을 제공해 주는 인치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과함은 여기에서 크리스찬이 일반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기름부으심을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성령세례를 통하여 말씀에 대한 특별한 확신이 주어지는 성령의 사역을 항시적 기름부으심 (anointing that abideth)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는 과함에 의하여 사실상 이중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일반적 사역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은 말씀에 대한 조명과 깨달음을 제공하지만 성령세례를 통하여 말씀에 대한 종말론적 확신을 제공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뜻하는 특별한 사역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2) F. F. 보스워스 (1877-1958)

보스워스는 신유사역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C & MA (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소속의 목회자이었다. 1906년에 찰스 과함에 의하여 성령세례를 받은 후 새롭게 형성되어진 미국 최초의 오순절 계통의 교단인 하나님의 성회 (Assemblies of God)의 창립멤버로 활동하기도 하였다.¹⁴⁾ 그러나 방언만을 성령세례의 ‘초기증거’로 받아들이는 총회측의 의견에 반대하고 치유를 비롯한 다른 가능성도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는 교단 내의 초기증거 논쟁 (The Initial Evidence Controversy)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보스워스는 하나님의 성회를 탈퇴하여 C & MA에 가입하고 자신의 신유사역을 계속하였다.¹⁵⁾

1924년에 발간된 <그리스도 치유자> (Christ the Healer)라는 설교집에서 그는 치유사역이 그리스도에 의한 것임을 증거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그가 오순절 운동의 핵심적 가르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이 잘 드러나게 되었다.

보스워스는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먼저 말씀에 관한 그의 견해를 치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치유를 위한 씨앗 (the seed)으로 간주하였다.¹⁶⁾ 보스워스는 잠언 4:20-22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의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바라보고, 가슴 속에 이를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능력으로 변하는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⁷⁾ 보스워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치유를 약속하고 보장하는 씨앗과 같다고 보았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곧

12) Douglas Jacobsen, *Thinking in the Spirit: Theologies of the Early Pentecostal Movement*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2003), 37, 46-50.

13) Parham, "The Everlasting Gospel" (1920) in *The Sermons*, 63. Jacobsen, *Thinking in the Spirit*, 47에서 재인용.

14) Richard M. Riss, "Bosworth, Fred Francis" in Stanley Burgess et al (eds.),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94.

15) William W. Menzies, *Anointed to Serve: The Story of the Assemblies of God*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71), 124-32; Gary B. McGee, 'Early Pentecostal Hermeneutics: Tongues as Evidence in the Book of Acts' in idem (ed.), *Initial Evidence*, 103-107.

16) F. F. Bosworth, *Christ the Healer* (Grand Rapids: Fleming H. Revell, 1973), 6-9.

17) Ibid, 11.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뜻하는 것이었다. 19세기의 신유운동가들이 그러하였듯이 보스워스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질병에서의 구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믿었다.¹⁸⁾ 즉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을 포함한 모든 연약함에서 구원하는 사역의 완전성을 뜻한다. 보스워스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이러한 완전성 (completeness)이 세 가지 측면을 지닌다고 보았다.¹⁹⁾ 첫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둘째,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셋째,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하게 나음을 받았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함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완전함으로 바뀌게 된다고 보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완전함은 우리에게 치유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를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말로 표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완전히 우리에게 적용되어 치유라는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스워스는 이해하였다.²⁰⁾ 고백에 대한 보스워스의 이러한 강조는 사실상 케년 (E. W. Kenyon)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²¹⁾ 따라서 치유를 약속하고 보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질병에서 낮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의지의 표현이며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역할에 해당된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뜻한다.²²⁾

계속해서 보스워스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성과 말씀의 효력이 주어질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적용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믿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보스워스에게는 그의 존재와 사역에서 비롯된 완전함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치유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 자체에 대한 고백이다. 이 고백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서 보스워스의 설교에서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증거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면 (고후 12:1-3) 보스워스는 왜 이러한 고백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성령론적 시각을 상실하게 되었을까? 그는 단지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주님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surrender) 한다는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다.²³⁾ 보스워스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 성령세례를 비롯한 각종 선물과 능력을 베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즉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스워스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지닌 효력이 믿는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할 때 이것이 결코 자동적 (automatic)인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스워스가 치유를 불러 일으키는 말씀의 능력을 논하면서 이를 성령의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치유론은 철저하게 기독교론적이라는 점이 장점이지만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할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말씀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모든 사람에게 발휘하는가? 다양한 인간적 조건들 (예, 믿음, 기도, 고백)이 충족될 때 치유의 말씀이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이 아울러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설교에 드러난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파함의 경우, 성령의 일반적 사역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조명하여 이를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침에 있어서

18) Ibid, 14ff.

19) Ibid, 140-142.

20) Ibid. 147.

21) Ibid. 148.

22) Ibid. 81.

23) Ibid. 147.



전통적이지만 성령의 특별한 사역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은 그의 인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성령세례로 나타나는 데 이를 통하여 이미 이해되어진 말씀에 개인의 확신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졌다. 보스워스의 경우, 그리스도가 치유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치유의 씨앗으로 간주하는 구도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사실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말씀이 자체적으로 지닌 효력이 성령의 사역 없이 인간 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제기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신오순절 운동 (Neo-Pentecostal Movement) 및 은사주의 운동 (The Charismatic Movement)의 설교에 드러난 말씀과 성령

196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유럽의 오순절 교단들은 사실상 기존의 교회들과는 결별된 자신들만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판도에 변화를 불러 일으킨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서 많은 기성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세례'를 체험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미국 성공회 소속의 목회자인 데니스 베넷 (Dennis Bennett), 영국 국교회 소속의 마이클 하퍼 (Michael Harper), 루터란 교회 소속인 래리 크리스튼슨 (Larry Christenson), 장로교 소속의 로드만 윌리엄스 (J. Rodman Williams) 등이 잇달아 이러한 체험을 겪게 되면서 기존 교회들이 오순절 교회를 인정하고 성령세례를 비롯한 오순절 운동의 가르침들이 다른 교회들속으로 파고 들면서부터 신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오순절 운동의 신학적 특징은 성령세례의 초기 증거가 반드시 방언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경직성 (rigidity)를 탈피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는 기존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방언이라는 경험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상황에서 오순절 운동의 가르침이 교회 속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변화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방언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령세례의 성경적 근거를 유비 (analogy)를 통하여 찾으려는 시도를 신오순절주의자들의 글에서 자주 발견하게 된다.²⁴⁾ 유비의 관계를 통하여 성령세례의 성경적 근거를 찾는 시도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예수님의 경우인데 그가 친히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신 사건을 성령세례의 전형 (type)으로 이해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사도들의 경우인데 요한복음 20:22-23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세례의 경우를 들어 모든 신자들이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오순절주의자들의 가르침의 기본적인 패턴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세례의 전형을 찾아서 이를 우리 시대의 삶에 적용하여 성령세례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를 신오순절 운동의 설교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존 스토틀 목사가 담임으로 목회하던 올 소울스 처치에서 사역하기도 하였던 하퍼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마이클 하퍼 (1931-)

하퍼는 1962년에 성령세례를 체험한 후에 신오순절 운동에 참여하고 영국 국교회 (the Church of England) 내에서 성령세례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지도자로 등장했다. 1964년에 Fountain Trust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영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성령세례의 필요성과 성경적 정당성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사역의 결과로 영국 국교회내에서 많은 지지자들을 결집하기에 이르렀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능력>(Power for the Body of Christ) 이라는 설교집에서 하퍼는 먼저 성경에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성령세례를 '약속 (the promise)', 또는 '축복 (the blessing)'으로 정의했다.²⁵⁾ 이러한 정의는 성령세례가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베풀어주시고자 하는 호의 (favor)라는 차원을 강조함으로써 지금까지 팽배해 있던 성령세례라는 용어에 내포된 부정적

24) H. I. Lederle, *Treasures Old and New: Interpretations of "Spirit-Baptism" in the Charismatic Renewal Movement* (Peabody, MA: Hendrickson, 1988), 57-60.

25) Michael Harper, *Power for the Body of Christ* (London: The Fountain Trust, 1969), 13.



함의 (connotation)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퍼는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에서도 성령세례의 전형을 발견하였다.²⁶⁾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멀리서나마 이러한 축복을 강렬하게 기다리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경의 전형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 (normal Christian experience)이란 성령세례라는 약속 또는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²⁷⁾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경험이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즐긴다 (enjoying the promise)는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영국 국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개념이 성령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²⁸⁾ 하퍼의 이러한 시도는 그가 속한 영국 국교회 소속의 모든 교회들이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가르침과 오순절 운동의 가르침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성령세례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목적을 위하여 주어

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²⁹⁾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성령세례가 특정한 계층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맛볼 수 있는 정상적 체험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졌다. 결과적으로 성령세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게 되는 특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님을 하퍼는 분명히 하였다.³⁰⁾

여기에서 우리는 하퍼가 주장하는 성령세례를 통하여 주어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어떻게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예수님을 비롯한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삶을 전형으로 삼는 삶에서 비롯되는데 이들의 삶이 성령을 체험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중요시한다. 하퍼는 이들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아니라고 밝힌다.³¹⁾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이에 포함된 축복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함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령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이에 약속되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세례의 결과이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해당된다. 성령세례를 받으라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분명한 명령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체험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³²⁾

하퍼는 고전적 오순절 운동에서 주장하듯이 (예. 찰스 파함)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과거의 사건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어야 함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세례라는 체험을 통하여 약속으로 받아들여지며 축복으로 체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들을 축복을 위한 일종의 전형 (type)으로 취급되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하퍼는 말씀을 축복으로 누리는 데 있어서 성령은 주체 (subject)가 아니라 언제나 매개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³³⁾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축복으로 누리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은 단순히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퍼는 성령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약속되어진 축복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방법 또는 매개체로 인식하였다. 말씀의 효력을 불러 일으킴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의 중요성은 인정되었지만 하나님으로서 성령이

26) Ibid, 18-24.

27) Ibid, 30-32.

28) Ibid, 43-45.

29) Ibid. 45.

30) Ibid. 48.

31) Ibid, 44.

32) Lederle, *Treasures Old and New*, 153-4.

33) Harper, *Power for the Body of Christ*, 44-45.



행하시는 주권적 측면이 지나치게 간과된 것으로 여겨진다.

2) 래리 크리스튼슨 (1928 -)

크리스튼슨은 루터란 출신으로서 1961년에 국제사중복음교회 (The Church of Foursquare Gospel)에서 성령세례와 방언을 체험하였다.³⁴⁾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이 사역하던 Trinity Lutheran Church를 오순절 부흥운동으로 이끌었다. 많은 경우에 그는 은사주의자 (the Charismatics)로 분류되어지기도 하지만 그의 초기 사역에서는 신오순절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었다.³⁵⁾ 그는 오순절 운동의 교리 (doctrine)를 경험 (experience)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데 이는 성령세례라는 경험을 해석함에 있어서 드러난 그가 지닌 반지성적 (anti-intellectual) 요소로 평가되어질 수도 있다.³⁶⁾ 그러나 이는 그가 성령세례와 그 경험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간의 이성적 차원에서 머무를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진 패턴 (divinely appointed pattern)에서 비롯되었다는 해답을 찾게 된다.³⁷⁾

크리스튼슨은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신오순절주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방언과 교회를 위한 의미> (Speaking in Tongues and Its Significance for the Church)라는 설교집에서 방언의 의미를 해설하고 있다. 이를 표징 (sign)으로서의 방언과 은사 (gift)로서의 방언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전적 오순절 운동에서는 방언을 성령세례의 초기 증거 (initial evidence)로 정의하고 이를 강조하였지만 크리스튼슨은 이를 은사의 차원에서 이해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징으로서의 방언을 통하여 성령세례가 회심, 구원의 확신 이후에 주어지는 결정적인 경험 (definite experience)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³⁸⁾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후에 일어나게 되는 경험을 뜻한다.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 작용한 후에 다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표징으로서의 방언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에 대한 표징이며 그가 성령과 더불어 직접 베푸시는 세례에 해당된다.³⁹⁾ 크리스튼슨은 표징으로서의 방언을 설명하면서 사실상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성령세례와 방언에 대한 원형 (pattern)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회심 이후에 주어지는 특별한 경험으로서의 성령세례와 성령세례의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점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크리스튼슨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세례의 특징을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에 신오순절주의적 특징이 잘 드러난다. PILOT이란 단어로서 Power, Instantaneous, Link, Objectivity, Tongue이라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⁴⁰⁾ 첫째, 능력 (power)는 성령세례의 목적이 복음 전도를 위한 능력부여에 있음을 가리킨다. 둘째, 즉각성 (instantaneous)은 성령세례가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며 인간의 노력여하에 달린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세째, 연결 (link)은 성령세례의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뜻한다. 네째, 객관성 (objectivity)는 성령세례가 개인의 주관적 체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차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됨을 말한다. 다섯째, 방언 (tongue)은 앞서 언급되어진 객관성의 구체적 표현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

34) H. Vinson Synan, 'Christenson, Laurence Donald ("Larry")' in Burgess et al (eds.),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163.

35) Lederle, *Treasures Old and New*, 76-9. Lederle는 크리스튼슨을 사실상 신오순절주의자인 동시에 은사주의자로 분류하고 있다. 같은 책 126-8을 참고할 것.

36) Larry Christenson, *Speaking in Tongues and Its Significance for the Church* (Minneapolis: Dimension Books, 1971), 35, 37.

37) Ibid. 39.

38) Ibid. 38.

39) Ibid. 40-42.

40) Ibid, 45-54.



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연결’인데 크리스튼슨은 이 연합이 회개, 믿음, 물세례, 성령세례의 순서로 일반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⁴¹⁾ 또한 이 순서는 뒤바뀔 수 있으나 회개, 믿음, 성령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성령세례의 경험을 회심이나 중생이라는 교리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따라서 성령세례가 회심이후에 일어나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오순절 운동의 기본적 가르침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루터교적 가르침과 성령세례의 교리를 조화시키려는 시도인데 신오순절주의의 특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중요한 요소로서 성령이 주관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이다.⁴²⁾ 그러나 성령세례의 주체는 정반대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렇다면 성령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요소로 작용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에 사도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로서 믿음을 지니게 된 초신자들에게 성령세례를 따로 받게 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에 근거하여 성령세례를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한 요소로 내세웠다. 크리스튼슨은 사도행전 19장이 지닌 구속사적 의의를 간과한 채 이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정상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는데 사실상 이 본문에서 언급되어진 성령세례는 믿음과 관련없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불러일으킨다는 결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제임스 던 (James Dunn)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요한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올바른 믿음을 갖고 회심하게 되었다고 보았다.⁴³⁾ 성령세례는 적어도 중생 또는 회심과 동일한 사건 내지는 이의 한 요소이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불러일으키는 믿음과 별개의 요소로 해석되어질 수 없다고 여겨진다.

크리스튼슨은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말씀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이 개인에게 주어진다라는 차원에서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획득한 대속의 은혜를 적용하신다. 그러나 크리스튼슨은 성령세례의 주체인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복음전파를 위한 능력을 제공하시므로(행 1:8) 이러한 능력 부여의 주체는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말씀을 통한 중생 또는 회심 이후에 발생하는 성령세례, 여기서 언급되어진 표징으로서의 방언을 수반하는 성령세례는 성령을 매개체로 주어지는 경험이므로 이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크리스튼슨이 주장하는 은사로서의 방언을 수반하는 성령세례의 차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언이 은사로서 인식된다는 것은 은사의 수여자 (giver)인 성령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방언이 성령세례의 표징으로서 인식된다는 것과 다르다. 은사를 베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성령의 주관적 사역으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진다. 크리스튼슨은 덕을 세우는 (edifying) 기능을 지닌 방언을 (고전 14:4) 중요시하고 이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다고 보았다.⁴⁴⁾ 즉 성령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개인과 교회의 삶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방언을 포함한 은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주관적 사역을 통하여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구도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5.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 운동의 설교에 드러난 말씀과 성령

1) 피터 와그너

C. Peter Wagner (1930-)는 15년간 남미의 볼리비아 (Bolivia)에서 사역하였으며 그 이후에 풀러신학교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회성장학 교수로 오랜 기간동안 봉직하였다. 국제적으로 은사계발을 통한 교회성장 이론을 주도한 교회성장전문가이기도 한 와그너는 또한 은사주의 운동에 앞

41) Ibid. 48.

42)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주의 구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91-2, 101;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하』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2000), 696; 헤르만 바빙크,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개요』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2004), 494-5.

43) James D. G. Dunn, *The Acts of the Apostles*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254-6; John R. W. Stott, *The Baptism and Fullness of the Spiri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1), 19.

44) Christenson, *Speaking in Tongues*, 75.



장서는 은사주의자이기도 하다. 빈야드 교회를 개척하였던 존 워버 (John Wimber) 목사와 함께 풀러 신학교에서 ‘표적과 기사, 그리고 교회성장’이라는 교회성장학 과목을 개설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아울러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기도 하였다. 1980년대부터 흔히 ‘제 3의 물결’ (the third wave)로 알려진 은사주의 운동을 주도한 와그너는 성령세례를 통하여 주어지는 방언보다는 신유와 악령축출의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기도를 통한 영적 대결 (spiritual warfare)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 3의 물결’이란 용어를 고안해 낸 와그너는 이 운동이 성령세례를 회심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함에 있어서 오순절 운동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이해한다.⁴⁵⁾ 그리고 중생 후에 성령의 채우심 (filling)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성령세례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제 3의 물결을 주장하는 와그너의 경우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가? 먼저 이 관계를 고찰하기에 앞서 ‘능력’ (power)이란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교를 통한 교회성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표적과 기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와그너에게 ‘능력’이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도를 통하여 사탄과 악령을 물리치는 영적 대결을 위한 능력과 신유의 은사를 통하여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며(행 1:8) 와그너에게 이 능력은 초자연적 (supernatural) 능력을 뜻한다.⁴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은 질병을 치유하고 악령을 물리치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리키며 이는 구체적으로 표적(signs)과 기사 (wonders)로 나타났음을 가리킨다.⁴⁷⁾ 더 나아가서 와그너는 이러한 영적 능력을 전략적 차원 (strategic-level)에서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영적 능력을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그 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사용한 전도자 빌립의 경우 (행 8:1이하) 성경은 빌립이 이러한 능력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다. 워버의 영향을 받은 와그너는 빌립이 전략적으로 말씀과 행위를 함께 사용하였으며 사마리아인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이러한 전략적 행위를 통해 나타난 표적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⁴⁸⁾

이러한 와그너의 영적 능력 개념은 그의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를 조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즉 말씀이 그 자체로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과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말씀과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의 전능하심 (omnipotence)에서 비롯되었으며 말씀이 곧 행위라는 중요한 원칙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⁹⁾ 따라서 와그너는 성령의 사역으로 가시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재해 있는 능력을 영적 능력의 인위적이며 전략적 사용으로 대체해버리고 말았다. 이는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키고 말씀에 내재해 있는 능력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말씀과 성령의 긍정적 관계가 전략적 영적 능력을 통하여만 보장되는 구도로 나타나게 되었다.

45) C. Peter Wagner, "Third Wave" in Burgess et al (eds.),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844.

46) C. Peter Wagner, *Spreading the Fire* (Ventura, CA: Regal Books, 1994), 68.

47) C. Peter Wagner, *The Third Wave of the Holy Spirit: Encountering the Power of Signs and Wonders* (Ann Arbor: Vine Books, 1988), 25-35. 이러한 능력을 전도를 위해 사용한 대표적인 인물이 와그너와 함께 풀러신학교에서 MC 510 "Signs, Wonders, and Church Growth" 를 가르쳤던 존 워버이었다. 그의 대표적 저서인 다음을 참고할 것. 존 워버, 『능력전도』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5).

48) C. Peter Wagner, *Confronting the Powers: How the New Testament Church Experienced the Power of Strategic-Level Spiritual Warfare* (Ventura, CA: Regal Books, 1996), 167-9.

49) J. van Genderen & W. H. Velema,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Kok, 1993), 687.



2) 조용기 (1936-)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당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용기 목사는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을 주장하면서도 믿음의 세계를 독창적으로 해석하면서 앞서 언급되어진 와그너와 유사하게 교회성장과 해외선교를 강조하는 신학을 지향해 왔다. 그가 지닌 오순절 신학의 특징은 삼박자 구원과 이를 교리적으로 체계화시킨 5중복음으로 나누어서 정리되어질 수 있다. 첫째, 온전한 구원 (full salvation)과 온전한 복음 (full gospel)은 인간의 영혼 구원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물질의 축복과 질병에서의 치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삼박자 구원’을 주장한다.⁵⁰⁾ 이는 미국의 건강과 축복의 복음 (Health & Wealth Gospel)의 영향아래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면에서 우리나라의 기복신앙과 유사한 면이 많으며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해답을 추구하지 않으려는 신학으로 보인다.⁵¹⁾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현재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기독교가 지닌 종말론적 차원이 간과되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재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의 중요성을 영적인 차원에서 강조하기 위하여 조용기 목사는 4차원적 영적 세계라는 개념을 고안해내었다. 3차원적 세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인간이 영적 세계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보았다.⁵²⁾ 믿음을 통하여 영적 세계에서 거하게 될 때 이 세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지니게 됨을 역설한다. 즉 사용하는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⁵³⁾ 둘째, ‘5중복음교리’인데 이는 중생, 성령충만, 신유, 축복, 재림을 가리킨다.⁵⁴⁾ 이는 성결교의 4대교리에 축복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국제4중복음교회의 4가지 가르침 가운데 성령세례를 성령충만으로 대체하고 거기에 축복을 첨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령세례에 대한 전적인 강조 대신에 성령충만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성령세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성령세례는 중생과는 분명히 다른 체험이지만 중생과 동시에 또는 중생 이후에 주어질 수 있다고 밝힌다.⁵⁵⁾ 이는 성령세례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으며 이를 성령충만의 한 형태로 보는 와그너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조용기의 신학적 성향은 ‘제3의 물결’의 성향에 근접해 있음이 잘 드러난다.

그렇다면 조용기 목사는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진리를 선포의 진리로 이해한다.⁵⁶⁾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으로 구분하는데 기록된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말씀에 해당된다. 그러나 ‘선포된 말씀’은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뜻한다.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통하여 개인의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어질 때 비로소 ‘선포된 말씀’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선포된 말씀’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 신유와 같은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았다.⁵⁷⁾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양분화시킴으로서 말씀 자체가 지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기록된 말씀’ 또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며 ‘선포된 말씀’과 그 실제적 능력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50) 조용기, 『삼박자 구원』 (서울: 영산출판사, 1977)

51) 이영훈, ‘삼중축복 신앙의 오순절 이해’,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편), 『조용기 목사의 삼중축복에 대한 신학적 이해』 (서울: 서울말씀사, 2000), 40-41.

52) 조용기, 『4차원의 영적세계』 (서울: 서울말씀사, 1996), 58. 이 책은 1979년에 미국에서 The Fourth Dimension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출판되었다. Paul Yonggi Cho, *The Fourth Dimension: The Key to Putting Your Faith to Work for a Successful Life* (Plainfield, NJ: Logos International, 1979).

53) Ibid., 87ff.

54) 조용기, 『5중복음과 삼박자축복』 (서울: 서울서적, 1983), 49-54.

55) Ibid., 116.

56) 조용기, 『4차원의 영적세계』, 93.

57) Ibid., 115-8.



말씀과 함께 (*cum verbo*)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per verbum*) 역사하시므로 ‘선포된 말씀’에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조용기 목사가 주장하는 선포된 말씀에서만 성령의 역사 하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할 뿐 만 아니라 성령을 ‘기록된 말씀’과 분리시키는 결과를 불러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6.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평가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신학적 입장에 드러난 교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운동이 20세기 신학에서 교회연합운동 (the ecumenical movement)을 통하여 성령론의 신학적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⁵⁸⁾ 성령론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모든 신학이 집중되고 만나는 핵심적인 분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희망의 신학’ (theology of hope)이라는 종말론적 신학을 구상하였던 위르겐 몰트만 (Jurgen Moltmann)도 1990년대에 들어서서 성령론을 자신의 신학의 중심 주제로 삼고 이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성령론은 오순절 및 은사주의적 주제들을 과감히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신학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⁵⁹⁾ 은사 (charismata), 방언, 그리고 신유 (healing) 등의 주제들을 다루면서 이 운동의 성령론적 공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순절 및 은사주의의 신학이 성령론으로 그 방향을 설정한 결과 이 운동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찰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곧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톰 스메일 (Tom Smail)은 은사주의 운동의 참여자로서 오히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이는 개혁주의 전통이 지닌 취약점이라고 밝히고 있다.⁶⁰⁾ 둘째, 필리오케 (filioque)를 인정하는 동방신학 (Eastern Orthodox Theology)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들 수 있다.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은 성령세례와 은사를 중요시하는 신학으로서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별도로 행해지는 성령의 독자적 사역 (independent work)을 인정한다. 동방신학의 경우 성령이 성자를 통하지 않고 성부로 직접 발출하였다는 필리오케 교리의 결론으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별도로 성령의 독자적 사역을 인정하고 있다.⁶¹⁾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과 동방신학이 공통된 가르침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⁶²⁾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은 서방신학 (개혁주의나 천주교 신학)과는 다른 구도를 지니게 된다. 셋째, 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이 회심과 중생의 차원을 제외하고는 은혜의 우선성과 중요성을 간과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령세례를 능력의 도구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능력에 대한 은혜의 교리적 우선성을 포기하는 신학을 형성하게 되었다.⁶³⁾ 이는 오순절 운동의 뿌리가 감리교 신학에 있음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 운동은 성령세례를 능력의 도구로 내세움으로서 사실상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이에서 비롯된 그의 은혜보다 더 우선시 하는 알미니안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⁶⁴⁾

그렇다면 이러한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이러한 신학적 경향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58) Juergen Moltmann, *The Spirit of Life: A Universal Affirmation* (Minneapolis: Fortress, 1992), 3-5.

59) Ibid., 180-193.

60) Tom Smail, *The Forgotten Father: Rediscovering the Heart of the Christian Gospel* (Carlisle: Paternoster, 1980), 13-9.

61) Vladimir Lossky, *The Mystical Theology of the Eastern Church*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98), 135ff; 156ff.

62) 앞서 언급되어진 마이클 하퍼의 경우 성령세례의 체험을 통하여 영국국교회를 떠나 은사주의 운동을 주도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동방정교회에 귀의하였다.

63)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233.

64) Smail, *The Forgotten Father*, 167ff.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사역한다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말씀과 별개로 주어지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독자적 차원을 강조하는 이중성으로 나타난다. 성령론에 대한 강조는 성령의 사역이 지닌 독자적 차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주로 성령론과 기독교의 분리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성령의 사역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다루기 보다는 성령만의 사역을 다룸으로서 성령의 특징이 삼위일체론적 일체성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되었다. 말씀과 성령에 관한 조화를 중요시 하는 개혁주의적 이해와는 달리 성령만이 행하시는 사역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독특성이 더욱 강하게 표출되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앞서 언급되어진 성령론에 대한 집중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삼위일체론적으로 균형잡힌 신학적 태도의 회복에 의해서만 극복되어질 수 있다. 둘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현실화를 가리키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남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은 말씀을 현실 속에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드러내는 성령의 역할보다는 개인에게 이러한 믿음을 제공하는 성령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다. 이는 믿음의 중요성과 이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 개혁주의적이지만 앞서 언급되어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보다는 인간 편에서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이 오히려 인간의 능력으로 오해되어질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서 비롯된 그의 은혜보다는 인간편에서의 반응과 이에서 비롯된 능력에 대한 강조에 놓여 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 그 효율성의 잣대로 판단하려는 시도를 발견하게 된다. 기록된 말씀은 인간의 지식에만 호소하는 것이며 기적을 수반하는 말씀(예, 선포된 말씀)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원화는 사실상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이원화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대한 분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cum verbo) 역사하신다는 개혁주의적 명제와는 분명한 차이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7. 나가는 말

지금까지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설교에 드러난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먼저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파함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한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복원이라는 차원을 강조하면서도 성령세례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종말론적 확신을 제공하는 성령의 독특한 사역을 강조하였다.

신오순절주의 및 은사주의 운동의 경우 하퍼는 성령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약속되어진 축복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방법 또는 매개체로 인식하였다. 말씀의 효력을 불러 일으킴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의 중요성을 방법의 차원에서 이해함으로써 성령이 행하시는 주권적 측면이 간과되었다고 여겨진다. 반면에 크리스튼슨은 말씀을 통하여 약속되어진 은사가 축복으로 주어짐에 있어서 성령의 주권적 사역을 인정하고 있다.

제 3의 물결의 경우 와그너는 은사의 전략적 사용을 통하여 말씀이 가시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하여 사실상 말씀에 내재한 능력을 부인하고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으로 이분화하여 기적이라는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어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함으로써 말씀 속에 내재한 성령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고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의 설교에 드러난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말씀 자체를 인간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이분화하여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키려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제 3의 물결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말씀 자체에 성령의 능력이 내재해 있다는 성경적 가르침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신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에서 드러난 경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이해함에서 있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성령을 이 과정의 매개체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고전적 오순절 운동에서 성령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성령세례를 통하여 종말론적 확신의 제공이라는 독특한 사역을 담당하신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적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현실 속에 그대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복원주의적 주장은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적 전능성이 오해되었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